

환경 '운동' 만 있고 '책' 은 없다

우수 환경도서 목록에 불교관련서 한권뿐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우수 환경 도서 공모전'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등 환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불교계가 관련 도서 출간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 256종의 도서 중 92종이 우수 도서로 선정된 이번 공모전에 불교 관련 도서는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를 위한 지울 스님의 단식 일지를 정리한 <지울, 숲에서 나오다> 한 권뿐. 기독교계가 <생태주의자 예수> <하느님 지구에 119를 보내주세요> <기독교 생명윤리> 등의 책을 출품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모전

결선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재일 사회생태연구소장은 "그 누구보다 친 환경적인 삶을 살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2002년 9월 이후 출간된 불교 관련 환경 서적이란 <발우공양> <정토출판과 <사찰환경의 보존을 위한 법률적 방안>(경서원)을 비롯한 2-3권뿐이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발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외국사례모음>, <쓰레기 제로> 등은 일반도서가 아닌 자료집 형태로 발간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교육원은 "올해 내로 일반 가

정에서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실천한 결과 사례집, 지평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관한 내용도 책으로 펴낼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여건 상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료집 형태로 출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불교계 출판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누적인 경영난과 얼어붙은 출판 시장 때문에 그나마 일정한 수요가 있는 스님의 법문집이나 경전류를 제외하고는 출간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울 스님의 <지울, 숲에서 나오다>와 새만금 사업 반대를 위한 '삼보일배'의 의의를 정

리한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도 불교계 출판사가 아닌 일반 '메이저'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이처럼 불교관련 환경서적의 출간이 저조한 이유는 불자들의 인식 부족, 교계환경책자들의 낮은 질, 유력 출판사들의 환경서적 냉대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소장은 "오늘날 인디언들의 생태적인 삶을 다룬 책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그 어느 종교보다 친환경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스님들의 삶을 다룬 책은 아직 단 한권도 출간되지 않았다"며 "이제 이슈를 쫓는 환경운동에서 벗어나 불교적인 환경, 생태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책을 출간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도룡농소송 대법원판결 남아

단식중인 지울스님 청와대 앞 농성 재개

도룡농소송 재항고장이 12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가운데, 7일로 올 해만 100일째 단식을 하는 지울 스님을 세운 지울 스님이 8일부터 청와대 앞 진입로 거리 묵언 농성에 들어갔다.

도룡농소송 시민연대는 12월 6일 우편을 통해 부산고법이 11월 29일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린 도룡농소송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재항고는 항고심 변론을 담당했던 이동준 변호사 등이 맡았다. 이에 따라 도룡농소송은 다시 한번 법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최근 부산고법의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지울 스님은 12월 7일자로 올 해 단식 100일을 돌파한데 이어 8일부터는 청와대 앞 진입로 거리농성을 시작했다.

1차 38일(2003년 2월 5일~3월 14일), 2차 45일(2003년 10월 4일~11월 16일), 3차 58일(2004년 6월 30일~8월 26일) 단식을 한데 이어 지난 10월 27일부터는 4차 단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10일) 지울 스님은 천성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경복궁과 청와대 사이 도로 한가운데서 묵언 단식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울 스님의 4차 단식은 환경부가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동 전

문가 검토 약속을 어기고 독자검토를 실시한 내용을 10월 19일 부산고법에 제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전통불교문화센터 22일 공주시 기공식

한국불교 전통문화사업 개발과 육성을 위한 총괄기관이자 불교문화 중심시설이 될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이하 문화센터) 기공식이 12월 22일 오후 2시 공주 마곡사 인근 건립부지에서 봉행된다.

기공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기명사, 사업단장 현고 스님의 경과보고,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심대평 총남지사,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오영희 공주시장 등의 축사와 함께 설계업체 대표의 건축개요 설명, 참석 내외빈의 시삽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센터 건립에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며, 불교문화전시장, 공연장, 연구시설, 체험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남동우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재추진

진옥 스님 "순수 종교목적 초청 문제없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재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지난 10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대회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내년도 중단 중점사업으로 채택할 뜻을 밝힌데 이어, 달라이라마의 한국 불자들을 위한 대중법회를 주관해 온 진옥 스님(여수 석전사 주지)도 시민·불교단체들과 연대해 1월 초순까지 방한추진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진옥 스님은 이를 위해 최근 달라이라마의 방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의 대표들을 만나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력을 부탁하고 방한추진위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진옥 스님은 "순수종교목적으로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정치권에도 정부의 비자발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국책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내년부터, 500억 이상 규모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500억 이상 규모의 모든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이 2005년부터 공사 시작 이전에 환경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찰이 소재하고 있는 국·도립공원을 비롯한 사찰인근 지역의 난개발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2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국가와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댐, 항만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선사' 들이 해외포교 이끌 것

인터뷰 승산 스님 외국인 말상좌 대봉 스님

"승산 스님은 대단한 선지식이었을 뿐 아니라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12명의 선사와 25명의 지도법사들이 32개국 120여 개 선원에서 정진중인 5만 여명의 외국인 제자들을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승산 스님 원적 후 해외 포교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승산 스님에 앞서 구산 스님이 1970년대 초 순천 송광사에 국제선원을 개설하고 많은 외국인 스님들을 길러냈지만 승산 스님 원적 후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12월 7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산 스님이 입적한 후 외국인 제자들을 어떻게 안고 나가는가가 관건"이라며 "회계사 주지 성광 스님에게 국제선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10일 서울 회계사 국제선원에서 만난 승산 스님 말상좌 대봉 스님(대전 무상사 조실·사진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회계사에서 동안거 결제 중인 대봉 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와 아침 예불을 드린 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참선을 하는 등 여는 남자와 다를 바 없이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제자 중 가장 먼저 승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스님은 미국 센터주립대학 경영학 교수를 지내다 1977년 승산 스님을 만났다. 이후 신도로 미국 프로비덴스 선원을 7년 동안 다니다가 84년, 34세에 승산 스님을 은사로 스님이 됐다. 대

봉 스님은 출가 후 결계를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다. 대봉 스님은 "전 세계 선원은 크게 아시아, 미국, 유럽 세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미국 권역은 대광·성황·우광 선사가, 유럽 권역은 우방 선사가, 아시아 권역은 제가 중심이 돼 운영합니다. 미국 프로비덴스 선센터 조실인 대광 선사가 이 세 권역의 연결점 및 중심점 역할을 합니다"라며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설명했다.

승산 스님이 외국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관음선종'은 재가자의 승복 착용과 지도법사나 선사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 한국불교를 접하기 때문에 '현지 토착화'를 위한 방안이다. 또 승속을 막론하고 누가 얼마나 깨달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승산 스님의 지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또 관음선종에서는 승산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기 받은 '선사'와 선원이자 사찰을 맡아 신도들을 지도



할 수 있는 '지도법사'로 나뉜다. 승산 스님의 초기 미국 제자이자 조계종 제1회 흥법 관음선원 부원장인 성향 선사의 경우 자녀를 둔 어머니다. <만행, 허버드에서 회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통 한국무술 '태고사'를 건립중인 무량 스님의 경우 지도법사에 해당된다. 이 외에 조계종 승적을 가지고 있

는 승산 스님 제자도 60여명에 이른다. 대봉 스님은 "만약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계사 국제선원장인 현각 스님이 처리한다. 사안이 큰 경우 대봉·무심 등 6명의 선사들이 논의해 처리한다"며 협력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승산 스님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수행하다보면 중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대봉 스님은, 종단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동안거 결제가 끝난 다음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은사 승산 스님에 대해 묻자 "할!"이라는 답을 돌려준 대봉 스님에게 "스님은 깨달았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스님은 곧바로 "당신은 누구입니까(Who are You)?"라고 되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I don't know)"라고 답하니, 스님은 대답에서 "나"를 빼고 '오직 모름 뿐(Only don't know)'이라고 정정해 줬다.

남동우 기자

실상사 화엄학림 제 9기 학인 모집 안내



한국 불교 수행의 주류인 禪의 사상적 토대는 곧 화엄입니다. 일찍이 先師들은 화엄을 통해 禪의 사상체계를 세웠으며, 禪을 통해 화엄의 실천적 입장을 넓혀감으로써 禪敎가 일치된 조화로운 수행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수행을 닦아가기 위해서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의 탐구와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고 새 시대의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2년 과정의 조계종 전문교육기관입니다.

화엄학림의 수업은 경전의 자구 해석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된 경론을 교재로 합니다. 경전의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요 논점을 잡아 집중 토론하는 논강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해와 실천행이 하나 되는 길을 찾습니다. 이처럼 화엄경을 통해 불교 사상을 확립하고 자신의 수행을 바로 세워 가고자 하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사 래**
- ◆ 교 과 목 : 종관개론 · 유식개론 · 화엄사상사 · 화엄현담 · 화엄경(80화엄) · 한문독해
 - ◆ 응시자격 :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불교학부, 기본선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 비구니 혹은 사미, 사미니
 - ◆ 제출서류 : • 입학원서(학림소정양식)1부 •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 4매(반명함판) •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부
 - ◆ 원서교부 및 접수 마감 : 2004년 9월 20일 ~ 2005년 2월 27일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실상사 화엄학림, 종무소, 인터넷 - http://cafe.daum.net/siisang4
 - ◆ 전형일시 : 2005년 2월 28일 월요일(음 1월 20일) 오후 1시, 실상사 화엄학림
 - ◆ 입학일시 : 2005년 3월 2일 오전 10시
 - ◆ 문의전화 : (063) 636-3994 · 3990 · 3861(화엄학림), 636-3031(종무소) 메일 - bkhhk34@hanmail.net / manjusri@kornet.net
 - * 입학 희망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일 이전에 미리 와서 거주할 수 있으며 화림원 선원에서 동안거 기간동안 실상 공부와 병행하고 있는 '書莊' 공부의 청강 및 학림 특강과 개인교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화엄학림 상세 안내 : http://cafe.daum.net/siisang4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 590-850)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재연